

# 광주·전남 대선후보 지지도, 이낙연 31.1%·이재명 26.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전남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야권의 텃밭인 광주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데다 여론 주도층인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이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1년여 전 여론조사에서 당시 이낙연 총리가 압도적인 지지도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추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8일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광주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61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1%로 이 지사 26.3%보다 4.8%포인트 앞섰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2%, 윤석열 검찰총장 1.4%, 정세균 국무총리 1.2%, 기타 2.5%, 없다 23.7%, 모름·응답거절 11.6%로 집계됐다.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이 대표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이 지사는 18~29세, 30대,

## 광주·전남 주민 1616명 대상 설문조사

### 이낙연 대표 오차범위 내 4.8%p 앞서

### 지역별로 광주 이재명·전남 이낙연 ↑

### 60세 이상 이낙연·나머지 이재명 높아

40대, 50대에서 모두 이 대표를 앞섰다.

광주·전남 지역별 지지율도 엇갈렸다.

이 대표는 농어민이 많은 농도 전남에서 35.0%를 기록해 이 지사(23.2%)보다 우위를 차지했으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광주에서는 이 지사가 30.4%로 26.0%를 보인 이 대표보다 4.4%포인트 높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 등 진보적 여젠대를 앞세운 이 지사의 행보가 비교적 진보성향이 강한 광주시민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표가 연초 내세웠던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광주시민들의 반감을 사면서 이 지사가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이 대표가 여성 33.0%로 남성 29.2%보다 3.8%포인트 높고, 반대로 이 지사는 남성이 32.7%로 여성

20.0%보다 12.7%포인트 높다.

직업별로는 이 대표가 농업·어업이 5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가정주부 36.5%, 무직·은퇴·기타 35.5%, 자영업 34.2%, 기능노무·서비스 28.1%, 사무·관리 24.2%, 학생 9.7% 순이다.

이 지사는 사무·관리가 35.5%로 가장 높고, 자영업 32.5%, 기능노무·서비스 31.2%, 가정주부 20.0%, 학생 16.9%, 농업·어업 16.8%, 무직·은퇴·기타 12.6%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41.0%로 이 지사(28.2%)를 넘어섰고, 열린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국민의힘 모두 이 지사가 이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 이 대표가 보수(33.3%)와 중도(26.2%)에서 높았고, 이 지사는 진보(36.2%)에서 앞섰다.

문재인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지지층에서 이 대표가 39.8%·이 지사

27.4%인 반면, 부정 평가하는 지지층은 이 지사가 25.6%·이 대표 10.0%로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1년여 전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광주M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당시 이낙연 총리가 53.5%로 1위, 이재명 지사가 6.4%로 2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이 대표는 22.4%포인트가 하락했고, 이 지사는 19.9%포인트가 상승했다.(한국갤럽, 조사일시 2019년 12월 16~27일,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최근 발표된 전국단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가 1위를 차지한 데다 호남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이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광주·전남 지지율이 이 지사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호남 지지율 이탈의 반동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광주·전남에서 29%를 차지했고 이 지사는 32%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한국갤럽, 조사일시



2021년 2월2~4일,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의 지지율이 1년 전 보다 크게 떨어졌지만 최근 급락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전남 7773명의 주민과 전화연결을 해 이 중 1616명이 설문을 완료, 응답률 20.8%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4%포인트다.

표본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

번호와 유선 RDD(무작위 생성 전화 번호를 통한 임의 걸기) 표본 프레임에서 2021년 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셀가중)를 할당해 무작위 추출했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유선 16.3%, 무선 83.7%를 합산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 文 대통령 지지도, 광주·전남 71.0%

### 고령층·농어민·주부 ↑ 전국 평균 지지율 견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광주·전남 시·도민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7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문 대통령에 대한 전국 평균 국정수행 지지율이 30~40%대를 오가는 것과 비교하면 광주·전남 주민들의 지지층이 견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광주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616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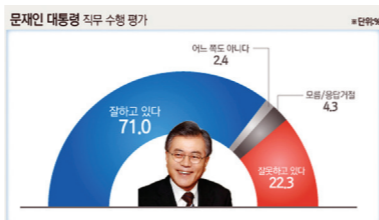
결과 71.0%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22.3%, '어느 쪽도 아니다'는 2.4%, '모름·응답거절'은 4.3%다.

성별로 여성의 긍정 지지율이 77.1%로 남성 64.8%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연령과 직업 분야에서는 고령층과 농어민의 지지율이 높은 반면 젊은층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 60세 이상이 80.6%로 가장 높고, 18~29세가 53.0%로 가장 낮았다.

직업군에서는 농어민 84.1%, 가정주부가 73.0%로 높은 반면 학생이 52.0%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69.9%, 전남이 71.9%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85.2%로 가장 높고 열린민주당 81.9%, 정의당 53.3%, 국민의당 24.9%, 국민의힘 8.0% 순이다.

정치성향에 따른 지지율은 진보가 80.0%, 보수가 66.6%, 중도가 62.9%를 보였다.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전국 평균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30~4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광주·전남의 지지율은 30%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에 대한 광주·전남의 높은 지지율이 전반적인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민주당 지지율 '압도적'...67%

### 정의당 4.6% 열린민주당 3.0% 국민의힘 2.8%,국민의당 2.2% 순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엇갈리면서 압도적이라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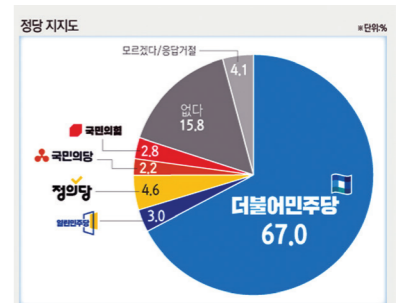
뉴시스광주전남본부가 무등일보, 광주MBC와 함께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616명(광주 807·전남 80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4%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이 67.0%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의당 4.6%, 열린민주당

3.0%, 국민의힘 2.8%, 국민의당 2.2% 등의 순이었다. '없다'가 15.8%다.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김종인 비대위 원장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꿇은 뒤로 호남팔어안기를 시도하면서 한 때 갑작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지역 숙원 사업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비호감'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무당층이 국민의힘 지



지도를 옮겨가지 않는 모습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젊은층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대선 무당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지지는 60세 이상에게서 78.9%, 50대 68.7%, 40대 69.9%, 30대 61.2%, 18~29세 44.5%로 나타났다. 무당층인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역으로 18~29세 32.9%, 30대 22.4%, 40대 14.5%, 50대 10.6%, 60세 이상 7.8%다.

뉴시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